

사설

조계종-선학원 합의 '환영'

조계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선학원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양측 대표자들은 8월 30일 회담을 통해 관계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관계 정상화 안에 따르던 선학원은 정관의 목적 조항에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봉대한다'는 구절을 삽입함과 동시에 입원 조항을 '입원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인 본인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한다고 한다. 나아가 현행 조계종의 종헌, 종규를 존중하여 향후 조계종 소속 승려가 창건한 신규사찰은 등록을 받지 않고, 조계종단에 교육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계종에서는 종법에 '재단법인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의 고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선학원에 대해 시행하고 있었던 교육, 승적, 수계에 대한 권리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은 이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방 이후 타의에 의한 평화운동의 전

개와 그로 인한 종단의 혼란과 갈등이 이어졌다. 그것이 선학원의 독자 노선을 고집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종교 환경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다종교 사회이며, 더구나 불교가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는 시대가 아니다. 사회 윤리적으로 그 도덕성과 적절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는 불교계 역시 지식산업사회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내부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결집된 불교계의 내적 역량을 사회를 위해 회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 정상화는 역사적 필연이다. 양측이 대립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미 99년도에 관계 정상화를 합의했으나 조계종 종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여 실패한 바가 있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미비점까지 보완했다고 하니 종회의 인준을 받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양측의 관계자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불교발전의 백년대계를 수립하길 고대하여 마지않는다.

불교환경연대에 바란다

새로운 범불교 환경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6일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 출범한다. 새 단체의 출범을 반긴다. 환경의 훼손과 오염에 의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사람들의 심성이 여전히 물질의 무게에 짓눌려 황폐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것이 바로 불자다운 불자, 불교다운 불교를 일컫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주요 사업으로 자연생태계 보전과 문화·종교 환경의 수호, 교육·홍보를 통한 환경지킴이의 양성, 연구·출판, 이웃한 단체와의 연대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행환경 침해로부터 사찰을 지켜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백두대간과 주요 산에 위치한 사찰과 사찰 주변의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 조사 사업에 주목한다.

사찰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슬한 환경분쟁을 겪어왔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30여 사찰이 분쟁의 와중에 있다. 이러한 때 백두대간과 주요 산에 터잡은 사찰에 대한 생태·문화·종교 환경에 대한 조사는 개발의

광풍으로부터 사찰을 지켜내는 근거를 확보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사업이다.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불교의 수승한 가르침을 요즘의 정서에 맞게 국민들에게 전하는 일도 불교환경연대의 과제이다. 무지막지만 개발을 막는 것이 환경운동의 궁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댐 건설은 막았으나 강은 또 다른 이유로 죽어가고, 댐 건설을 막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정부, 지역주민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강은 미물보다 인간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새로 출범하는 불교환경연대는 자연에 대해 지극히 겸손하고, 물신주의의 허상을 부수어가는 환경운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참여와 행동이 없이는 나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흔쾌히 동참하고 애정 어린 비판을 주저하지 않을 때 불교환경운동은 생동감이 넘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이 어느 누구의 소임만이 아닌, 모든 불자들의 관심사항이 되어야 한다.

조계사 '통일가사' 만든다

300여벌 제작 11월 승가고시 이수자에 봉정

이달중 가사도감 설치

조계사가 조계종 교육원과 함께 가사 통일화 작업에 나선다.

조계사주지 지홍이는 교육원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3급 승가고시 회향에 맞춰 조계사에서 제작한 가사 300여벌을 승가고시를 이수한 스님들에게 봉정한다. 봉정식은 3급 승가고시 마지막 날인 11월1일 직지사에서 열린다.

조계사의 이번 가사봉사는 가사를 종단차원에서 지급함으로써 그동안 색상이나 종류 등 승가 위와 관계없이 착용해 오던 가사를 점차적으로 통일해 나가겠다는 교육원의 의지를 반영하고, 2-3년마다 해오던 가사봉사를 여법하게 봉행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계사는 이를 위해 9월2일 가사봉사 입재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으로 조계사 신도회관이나 문화교육관에 가사도감을 설치, 연인원 800여명 이상의 신도들을 동원해 300여벌의 가사를 제작하게 된다. 또한 가사도감에는 가사제작 전문인 침공(針工)스님을 두고, 침공스님으로 하여금 가사제작을 감독하게 할 방침이다. 가사봉사 회향은 봉정 하루 전인 10월31일, 이번 가사봉사에서는 7조 가사를 중심으로 9조와 13조 가사를 지을 예정이며, 3급 승가고시를 치른 스님들의 승탑을 고려, 7조 가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조계사와 교육원은 이번 가사봉사를 계기로 종단의 가사 통일화 작업에 본격적인 불을 지핀다는

방침 아래 내년부터는 구족계 수계자들에게도 조계사에서 가사를 제작, 종단 차원에서 통일된 가사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가사에 조계종단을 상징하는 마크와 휘장을 제작해 품계에 맞게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구족계 수계시 가사를 개인이 준비하도록 해 의제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착용해왔다. 지홍스님은 "현재는 마음대로 가사를 착용할 수 있어 의제가 무너진 상태다. 더구나 승복 집에서 제작하다보니 여법하게 제작되지 않고 값도 비싸고 변형이 심해 승복의 위상이 손상됐다"며 "종단의 가사통일화 작업에 적극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가사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청하스님 영결·다비식이 8월26일 통도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됐다.

청하스님 다비식...1만대중 애도

8월22일 입적한 청하당 성원 대종사 영결식이 8월 26일 통도사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거행됐다.

5번의 타종으로 시작된 영결식은 청운, 행장소개, 육성법문 청취, 영결사, 법어, 조사, 헌화 및 헌향, 조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영결식에서 조계종 종정 해암스님은 원로회의 상임부의장 종산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영축산정에 사자후하고 낙동강산에 근학비옹하도다. 계행의 엄정함은 승가의 사표요 교화증생은 사해에 미친다"고 설했다.

원로회의 의장 법전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스님은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묵묵히 버림목이

되어 주셨다"고 회고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조사에서 "종단의 스승으로 법유의 은혜를 주셔야 할 스님께서 사비의 육신을 벗으실은 실로 우리 시대의 아픔이 아닐 수 없다"고 애도했다.

영결식후 사부대중이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가운데 스님의 법구는 다비장으로 향했다. 만장과 번을 앞세우고 스님의 영정과 법구가 다비장에 다다르자 "스님 불 들어갑시다"는 말과 함께 다비가 시작되었고 스님의 왕생극락을 염원하는 염불은 더욱 간절하게 이어졌다.

스님의 초재는 28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했으며 10월 9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49재가 봉행된다. 0551382-7182 천미희 기자

"전통사찰 관람료 폐지"

8개 불교단체 '전사법 개정안' 재검토 요구

"전통사찰에 대한 관람료 징수를 재정적 지원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국가의 책임을 개별 사찰과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 중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경불련, 두레생태기행 등 8개 불교단체는 8월 30일 문화관광부의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개정안 중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강화

한 조항들에 대한 재검토와 불교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불교단체들은 "전사법 개정안 중에는 정치권력에 의한 종단의 예속과 간섭을 강화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의 부담을 전통사찰과 국민에게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의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공개적이고 폭넓은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종단지도자들은 과거 불교재산관리법이 종단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는 등의 비민주적 종단운영의 역사를 인식하고 관련 조항들을 신중히 검토한 후 불교계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태고종 운산스님 "분규해결 나설터"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운산스님은 8월 30일 교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종단 분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회의 촉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운산 스님은 "공식 비공식 대화를 계속 하겠다"면서 "인사 문제는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원칙에서 타협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대외에 간섭을 강화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의 부담을 전통사찰과 국민에게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의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공개적이고 폭넓은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숙 기자



국보급 관리에...

"안암학사·재정문제 비대위서 해결"

중앙승가대 정상화 간담회

중앙승가대는 교수와 동문, 학생회, 조계종 종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월30일 보타사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하(조계종 종회의장) 종석(중앙승가대 총장직대) 원행(총동문회장) 임용(총학생회장) 스님 등 학교 동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정 문제와 안암학사 처리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동문회와 학생회로 구성된 학교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이들 문제에 대한 해법

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총동문회 측은 "고시원 임대체인 법진유물이 고시원 개조를 위해 25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시설투자에 대한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하(조계종 종회의장) 종석(중앙승가대 총장직대) 원행(총동문회장) 임용(총학생회장) 스님 등 학교 동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정 문제와 안암학사 처리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동문회와 학생회로 구성된 학교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이들 문제에 대한 해법

이에 앞서 총학생회는 28일 김포학사 본관 4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법스님 총장 복귀의제, 안암학사, 동문회, 교직원과의 합의 등 4대 과제를 제시하며, 안암학사 임대계약 무효화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명우 기자

포교사단 160명 연수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8월 25-26일 이틀간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2001 사찰안내분야 포교사연수'를 실시했다. 사찰안내팀과 경찰, 교도소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포교사 16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지역 및 팀 단위의 사찰중심 지역포교 활성화 △지역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종단차원에서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 강구 등이 주요 논의됐다. 한명우 기자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雪山白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圓滿
慈悲하시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
이시다
二五五年二月二十一日
小衲西翁謹書



고불증림 방장 서운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co.kr